News p/04

'딸깍발이 판사' 총리 급부상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제2651호 www.metroseoul.co.kr

World p/06

미셸 21세기 최고 섹시여성

나로호 오는 30일 3차 발사

NEWS p/02

취업난에 다시 '5학년' 선택

NEWS p/03

슈퍼주니어 'K팝 최강자'

ENTERTAINMENT p/14

김덕현
KAIST, Ph.D
Management Science
배성환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mmunication Arts
사이버 명문을 만드는
세계적 교수진
신 · 편입생 모집
Ⅰ. 원서접수 2013.1.17(목)~2.15(금)
Ⅱ. 모집단위
*2013학년도 신설학과
계열 / 학과
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경영학과
유통물류학과 / 금융보험학과 / 회계·세무학과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패션비즈니스학과
*마케팅·홍보학과 / 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개발투자학과 / 부동산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조리산업경영학과
IT·디자인계열
정보통신학과 / 정보보호학과
모바일콘텐츠학과 / 게임영상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Ⅲ. 상세 모집전형 및 인원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http://www.sjcu.ac.kr/entr
Ⅳ. 문의 02)2204-8000
대학원
· 원서접수 2013.1.8(화)~2.12(화)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MBA학과 (외식·마케팅유통·경영)
· 문 의 02)2204-8640 http://graduate.sjcu.ac.kr
세종CYBER대학교

메트로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제2651호 www.metroseoul.co.kr

책장 넘기면 어느새 '소셜 힐링'

서점가 올해는 '나 아닌 사회적 치유 열풍' 예고
도전하는 젊음에 조언하는 처방전 도서도 봇물

"힐링의 요구는 고통이 전제돼 있다. 20대는 취업을 못하고 40~50대는 직장을 나와서 생계형 창업을 해야 하고… 한국 사회는 모든 세대에 걸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출판계를 휩쓸고 있는 힐링 열풍에 대한 변화경영사상가 구본형의 진단이다. 힐링에 대한 열망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개인적 치유'에 꽂혔던 열망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힐링'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힐링'의 본질적인 측면을 성찰하고 이후의 도전을 담은 책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혜민 스님의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로 대표되는 힐링 책들은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출판계를 이끌었다. 출판 전문가들은 올해도 '힐링'이 출판계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봤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안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힐링 열풍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개인적인 마음의 치유, 즉 감성적 위로가 사회적 힐링 또는 치유 이후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동석 북칼럼리스트는 "사회적 힐링이 2013년에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획회의' 최근호에서 "진정한 힐링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돌파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출간된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그 전조로 읽힌다. '죽음'을 테마로 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올해 나올 셀프 힐링 도서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처럼 철학적 차원으로부터 시작해 치유의 가능성과 치유의 구체성을 본질적인 측면에서부터 사유하고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겠나"고 예상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일상과 가르침을 담은 사진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의 판매가 늘고 있는 것도 '소박한 삶의 추구'라는 진정한 힐링의 방법론을 담고 있어서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지난주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전주에 비해 한 계단 오른 13위를 차지했는데 찾는 이들이 더 늘고 있다. 예스24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 집계되는데 현재(16일 오후 4시 기준) 11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신동원의 '멍 때려라!'는 힐링 이후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처방전 중 하나다.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만성적인 피로가 정신의 피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신 교수는 "우리 머리에도 공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사람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잇따라 그리스 관련 서적들이 출간되는 것도 힐링 이후의 도전을 말하고 싶어서다. 23일 사공의서 박경철이 내놓을 '문명의 배경 그리스'는 '인간의 탁월함, 그 근원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말하듯 그리스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자취에 주목했다.

4일 출간된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는 신화를 통해 도전을 권하고 있다. 구본형은 "새로운 운명을 만나서 미지의 삶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사다리 타기 경쟁 속에 공동체를 겪고 있는 우리가 내 일생을 바쳐서 되고 싶은 것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김주희기자 kuzhand@metroseoul.co.kr

유치원은 손씻기 '열공'… 마트는 항균제품 '불티' 미국발 독감 공포에 노로바이러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까지 커지면서 개인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해송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깨끗한 손 교육을 받고 있다(위). 항균 비누, 손세정제 등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항균제품을 따로 진열해 팔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연합뉴스

직접 기른 농작물로 요리해 주는 팜카페 · 이동식 애견 장례 서비스 · 사슴벌레·장수풍뎅이 곤충 판매사업 · 30분 쉬어가는 산소방

'돈 되는 아이디어' 이런 창업 어때요?

어린이 전용 체험 미술 카페, 헌 옷으로 인형 만들기, 파티 전문 레스토랑, 1인 여행자를 위한 싱글 호텔, 직접 기른 농작물을 요리해주는 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와 같은 신사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청년층의 구직난으로 창업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돈만 까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수익성, 성장 가능성, 차별성 등을 고려해 엄선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어린이, 취미·여행, 건강·웰빙, 맞춤형 서비스, 웹 기반, 홈 케어, 틈새시장 등 7개 주제로 분류해 16일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 분야에서는 장난감 게임 형식의 어린이 글짓기 첨삭 서비스, 어린이 과학 테마 키즈 카페, 토링 사업, 과학 테마 키즈 카페, 취미·여행 분야에서는 파티 전문 레스토랑, 체험 투어 잡 여행(Job Tour),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처럼 고부가가치 곤충을 판매하는 사업, 건강·웰빙 분야에서는 실내 디지털 암벽 게임, 유기농 밥집, 15분 또는 30분 쉬어가는 산소방 등을 추천했다.

맞춤형 서비스 분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애견 유치원, 신예 작가를 위한 개인 맞춤 출판 서비스, 추억 보관 타임캡슐, 죽은 사람의 유골을 보석함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 이동식 애견 장례 대행 서비스, 웹 기반 분야에서는 소셜네트워크 광고 대행 서비스, 종이책을 디지털 e-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을 감시해주는 서비스 등을 골랐다.

홈 케어 분야는 그린 청소 서비스, 유아용 제품 안전 상담, 태양광을 이용한 매출 관리 사업, 직접 찾아가서 전기 제품을 설치·수리해주는 서비스, 틈새 분야는 취업을 알선해주는 스터디 카페, 시니어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주는 사업 등을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박상준기자 jun@

나로호 30일 다시 우주로

오후 3시55분 3차 발사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30일 세 번째 발사에 도전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에서 기술적 준비와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사 예정일을 30일로 잡았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오후 3시55분부터 7시30분까지며 정확한 발사 시간은 날씨와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해 발사 당일 오후 1시30분께 확정할 예정이다.

발사는 기온이 영하 10도~영상 35도면 가능하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외나로도는 최근 5년간 1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면서 기상 조건이 발사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나로호 발사체 상단부는 지난주 재조립됐고 이번주 말까지 하단부와 상단부를 결합한 뒤 다음주 중 발사운용 예행연습을 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발사 예정 시각을 16분여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중단된 나로호를 정밀 조사해 추력방향제어기 내부에서 발생한 과도한 전류가 '유압모터 제어기 고장'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유압모터 제어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고 검증 시험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비유오기자]

아빠지갑은 영하 20도

카드 덜 긁고 휘발유 덜 넣는 등 내수침체·한파 겹쳐 소비도 꽁꽁

브라우니도 수요집회 응원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05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소녀상 옆에 브라우니 인형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한 동안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충격에 극에 달한 2009년 초 이후 최악 수준으로 둔화됐다. 휘발유 소비량은 2008년 고유가 파동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지난달 소매 분야 속보치를 보면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2011년 12월보다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9년 4월(7.0%) 이후 3년8개월 만에 월별 최저 증가율이다.

12월은 소비가 가장 왕성한 시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년 12월에도 9.1% 늘었다. 12월 기준으로 최근 증가율은 2009년 20.0%, 2010년 14.5%, 2011년 18.4%였다.

이런 증가율 둔화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한 의류 등 월동용품이 잘 팔리는 부분적인 '한파 특수'도 보였지만, 경기 둔화와 혹한 탓에 외출을 자제한 영향이 더 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주요 백화점 매출은 지난달 0.7%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1월에 9.1% 늘며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매출이 5.9% 줄며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달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12월보다 5.8%나 줄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한 고유가 파동의 끝물인 2008년 10월(-9.0%)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지난달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936.58원으로 전월보다 20원 넘게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이날 피해 여성의 동생 A(26)씨는 "사형이 아닌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부실한 초기 대응을 한 경찰은 아직까지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흐느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퇴근하던 피해 여성(28)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윤하기자

태안 기름유출 피해금액 7341억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금액이 7341억4383만3831원으로 결정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태안 주민들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일보 해킹 北 소행…두달전부터 준비

지난해 6월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가 북한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중앙일보 뉴스 홈페이지에는 입을 가리고 웃는 고양이 사진과 함께 '이스원이 해킹했다(Hacked by IsOne)'는 메시지가 떴다. 신문 제작 시스템의 데이터도 삭제돼 중앙일보는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어야 했다.

경찰은 중앙일보 보안시스템 접속 기록과 신문 제작 시스템 악성코드, 공격에 이용된 국내외 서버 19대 등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테러 공격의 진원지로 북한을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통신회사인 조선체신회사 회선을 사용하는 PC 이용자 '이스원(IsOne)'은 테러 개시 2개월 전인 지난해 4월 21일부터 중앙일보의 주요 피해 서버에 집중적으로 접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도적이고 준비된 사이버 공격"이라며 "다른 언론사들도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윤하기자

'놀이터'된 서울도서관

뛰고 떠들고 내팽개치고 찢어가고… 일부 이용객 시민의식 실종

옛 서울시청사에 지난해 10월 26일 정식 개관한 서울도서관이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구비 자료와 장서를 늘려 20만 권을 돌파했고,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운영 초기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되면서 도서관이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졌다.

나무 재질의 계단형으로 구성된 1, 2층 서고 앞에는 위아래로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고, 공공 예절을 알려줘야 할 학부모들은 오히려 큰소리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열람실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버젓이 하기도 했다.

도서를 훼손하거나 십여 권의 책을 한자리에 쌓아놓고 보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내팽개치는 행동이 비일비재했다.

도서관 관계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정숙할 것을 지도해도 좀처럼 소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 장모씨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씨는 "비닥에 카펫 등을 깔거나 이용자 정원을 제한하거나 유료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용훈 관장은 "입장 제한이나 유료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 구조와 개방성 취지 등에 따라 어린이 전용실의 개설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동호기자 elevae@metroseoul.co.kr

숨막혀 못살겠다 중국 중부지역에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베이징 스모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어려워 대학 5학년 선택

4학년 43% "졸업 연기"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졸업반 학생 10명 중 4명은 졸업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교 4학년생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7%가 졸업을 연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기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직 취업하지 못해서'(6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이 졸업예정자를 선호해서(45.5%),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37.6%), 졸업 후 구직 기간이 길어질까 두려워서(31.2%),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19.2%) 등의 순이었다. /정윤희기자 uniqu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5>

글 그림 박상철

'딸깍발이 판사' 총리 되나

'청빈 대명사' 조무제 전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조각 핵심인 국무총리 인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최근 외교사절 접견을 제외하고는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 채 인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이 지역보다는 능력과 민생을 중시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면서 '딸깍발이 판사'로 유명한 조무제(사진)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 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고 2004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경기도 용인 25평 전세 아파트가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딸깍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물망에 올랐다. 이 소장은 호남 출신 인사로 거론되지만 21일 퇴임 직후 총리직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정유리기자

산업인력공단 사상 처음 외부전문가 16명 공개채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직업능력개발 직무역량과 산업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16명 공개채용을 16일 확정했다.

이번 채용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내실있는 HRD(인적자원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1급 국장급~5급 대리직급까지 전 직급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이뤄졌다.

최종 합격한 안봉면(39)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HRD 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안씨는 "대기업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확산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성합격자 안영수(40)씨도 "직업훈련 교재 콘텐츠 개발 등 실무경험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 편집인	남궁호
서향 편집인	김종학
광고국장	김한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42

2005년 5월 2일 창간 2005.5.14 등록번호 문화가 00057

연금복권520 제81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 20년	2조	529008
		1조	702025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12186
4등	100만원	각조	67632
5등	2만원	각조	871
6등	2000원	각조	27 68
7등	1000원	각조	7 0

새누리 "이건희 회장에게도 매달 9만원 주는 노령연금 인상안 수정 불가피"

朴공약 '속도 조절'한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인상안 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증세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남은 건 세출 구조조정뿐인데 이는 쉽지 않다"며 "기존 편성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매달 9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어날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분석·진단할 것"이라고 밝혀 비현실적 공약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박 당선인 미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오른쪽)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접견단과 인사하며 싱 김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이 두 배로 두둑해졌네?"

연말정산! 나라에서 한 번 받고, 롯데카드로 한 번 더 받으세요!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3년의 연말정산, 롯데카드로 미리 준비하세요 **7개 항목 이용금액**의 **최대 3%**를 **롯데포인트로 한 번 더!** 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
- **적립시기** 2014년 2월 말 적립
- **신청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ARS(1577-5320) 신청
- **행사대상** 신청회원 중 2013년 연간 개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연간 이용금액에서 7개 항목 이용금액과 오토/스피드카시 등 일부 이용금액은 제외됨)
- **행사내용** 롯데카드 7개 항목 이용금액의 1%~3%(최고 63만원)를 롯데포인트로 적립 (7개 항목 : 통신비, 보험료, 국세/지방세, 하이패스, 해외일시불, 아파트관리비, 병원비)

LOTTE CARD

中 불량식품·의약품 소탕령

제보자에게 최대 5100만원 포상 '식파라치제' 도입

현이은 불량식품·의약품 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중국이 '식파라치' 제도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30만 위안(약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SFDA 회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제보의 정확도 등에 따라 문제의 식품·의약품 가격의 1~6%를 30만 위안 한도 안에서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 SFDA는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의약품 관련 제보에 국한된 보상 범위를 식품까지 넓히고 보상금도 기존 5만 위안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가짜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는 가짜 술·담배 계란 등에 이어 가짜 건강식품·화장품·약품까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국명기자 kmlee@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미국인 절반이 스페인어 쓴다고?
- '오염도시' 톱10 중 7곳은 중국에
- 멕시코 '여성이 살기 나쁜 나라'에

갈수록 매력! 팔뚝이 예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미셸 오바마 미 영부인이 21세기 가장 섹시한 여성 10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남성잡지 GQ는 클린턴 장관과 미셸 여사가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비 등과 함께 순위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유명 코미디언 세스 마이어스는 이 잡지에 실은 클린턴에 대한 추천사에서 "대단 더 '섹시'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힐러리 클린턴. 무슨 일을 하든 해마다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GQ는 미셸 여사와 관련, "지셸쪽을 봐라. 미셸은 블루밍데일 백화점 쇼핑백 1000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미셸 같은 팔뚝을 달아주면 나는 세상도 다스릴 수 있다"며 건강미를 극찬했다.

이 밖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불륜 상대인 폴라 브로드웰, 이탈리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받다 무죄로 풀려난 미국 여대생 아맨다 녹스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당사자들도 '섹시 우먼'으로 꼽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Nikkei (일본)
10600.44 (-278.64)

Hang Seng (홍콩)
23356.99 (-24.52)

Shanghai (중국)
2309.50 (-16.18)

Dow Jones (미국)
13534.89 (+27.57)

EXCHANGE RATE

달러	1059.50
엔(100)	1206.21
유로	1405.96
위안	170.45

75세도 무심사 암보험 가입

라이나생명 국내 최초 고령자 전용상품 출시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기자

10시간 더 일해도 월급 절반

중소-대기업간 근로·임금격차 심화 · "내수·수출 위주 구조적 문제 탓"

지난 5년 동안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월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의미다.

국내 제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 인원 중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중소 제조업(5~299인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68만3170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16만6133원의 51.94%에 불과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1분기 55.95%에서 4년6개월 만에 4.01%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4년6개월 동안 21.39% 오른 데 비해 대기업은 30.77%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 제조업의 작년 3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6.7시간으로, 대기업(176.8시간)의 105.6%에 달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수출 위주, 중소기업은 내수 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봉기자

겨울이 만든 달콤함 16일 롯데마트가 겨울 제철과일인 한라봉을 선보이고 있다. 2kg들이 한 박스를 1만25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재직기간 상관없이 '스피드론' 즉시 대출

신용도는 좋지만 재직 기간이 짧아 금융권 대출이 거절된 직장인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규취업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www.alpsloan.com)의 스피드론 상품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1000만원까지 즉시 송금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스마트폰 앱으로 조회기록 없는 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은행 수준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직장인대출을 추천한다. 문의 1600-8888

외인들 6조원 배당잔치 전망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2년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150억4000만 달러의 매수 우위를 보여 2년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앞서 2011년 외국인은 69억63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한 대외자금이 늘어난 만큼 외국인이 받게 될 2012년분 배당총액도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시총 상위 100개 기업의 2012년 사업 실적에 따른 배당총액은 14조53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전체 배당금액의 40%에 가까운 규모인 5조7537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기자

샤워부스 파손 주의보 안전필름 부착 예방을

"강도증가·파편분산 효과"

샤워부스 유리가 갑자기 깨진다면?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연간 8회 이상씩 일어나는 사고라는 뜻이다.

지난 11일 KBS에서도 강화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를 다루었다. 국내에는 관련 안전 기준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샤워부스가 자연 파손되는 이유는 강화유리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에 황화니켈이 유입되면서 강화처리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 과정·제품 사용 중 흠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 연수 3년 이상의 오래된 부스일수록 유리가 약해져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유리에 부착하는 안전

안전필름에 대한 인장 강도 시험 장면 /솔라메이트 제공

필름이 각광받고 있다. 단열안전필름 전문기업 솔라메이트(www.solamate.co.kr) 관계자는 "안전필름이란 유리의 강도를 증가시켜 외부 충격을 잘 견디게 해 파손 시 파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용 필름"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이 올 때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깨진 유리의 파편이 튀는 것을 잡아주는 점에서 안전필름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박상준기자

페이스북, 검색시장 진출

10억 가입자 공유정보 기반 검색엔진 '그래프 서치' 시동

대표적인 SNS 브랜드 페이스북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 진출했다.

페이스북 가입자 10억 명과 그들이 만들어낸 2400억 건의 사진, 1조 건의 연결 등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빅2'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 구글·MS 양강구도에 도전장

페이스북은 15일(현지시간) 소셜 검색엔진인 '그래프 서치'를 발표했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사옥에서 제품을 공개하고 "웹 기반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고 고객의 소셜 네트워크와 연관된 각종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검색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검색어 입력 방식과 차별화

기존 검색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가장 적합한 웹사이트를 이용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래프서치'는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인물과 장소, 사진, 관심사 등 각종 콘텐츠에서 결과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웹 검색에서는 '힙합(hip hop)'을 찾는다면 그래프서치에서는 '뉴욕에서 제이-Z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입력해 답을 구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실제 입력되는 검색어도 일반 검색엔진과 다르다. 인물 검색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함께 있는 친구들', '고향에서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 검색 서비스는 당분간 제한적인 베타버전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am@metroseoul.co.kr

극지방 재킷 "난싸 비커!" 이러스요 노니어 극지방용 방한 재킷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16일 서울 아이파크백화점이 극지방용 방한 재킷을 출시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SK건설, 에스메랄다스서 'SK배 축구대회' 개최

에콰도르 소도시에 '화합의 골인'

2011년 8월 에콰도르의 에스메랄다스 데인스타디움에서는 1만 명의 응원 소리와 환호성으로 하늘이 뒤덮였다. SK건설과 에스메랄다스 체육협회가 공동 주최한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COPA SK Campeonato Intercolegial de Futbol)'의 결승전이 열렸던 것이다.

SK건설이 에콰도르에 에스메랄다스에 진출한 뒤 지역사회와 한데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에스메랄다스시의 30만 명 인구를 축구 열풍으로 들썩이게 했다.

SK건설은 에콰도르에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한국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2010년에는 에스메랄다스 소재 하이메 우르타도 곤잘레스 초등학교 시설을 개보수하고 컴퓨터 등 IT 기기 지원을 위해 10만 4000달러를 기부했다. 최근에는 에콰도르 동부에 위치한 아마존 열대림 '야수니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야수니 프로젝트'에 5만 달러를 기부했다. /박상훈기자

SK배 고교 축구대회에 참가한 에콰도르 고교팀

분양단신

구월 보금자리 토지 공급

인천도시공사는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업 용지 및 단독주택 용지 분양에서 100% 계약에 성공한 데 이어 이달 유치원, 종교시설 및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등 총 3필지(5826㎡)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 토지는 유치원 용지 1필지(545㎡), 종교시설 용지 1필지(1166㎡)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1필지(4115㎡)이며, 유치원 용지와 종교시설 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서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20%로서 3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 13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청계푸르지오 23대 1 경쟁

대우건설이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의 더블역세권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결합 상품인 '청계 푸르지오시티'를 12일 분양해 최고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실투자금 4000만원대 월 임대료 70만원에 가능하다. 문의 1600-2553

독감 공포! 항균제품 '날개'

온라인몰 살균비누·손소독제 매출 급증…건강식품 덩달아 인기

연초부터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개인 위생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독감과 함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노로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세정제나 항균 제품 등이 인기다. 여기에 최근 '해빙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져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8~14일 일주일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독감 예방 상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마켓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G마켓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항균비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8%, 손세정제와 손소독제는 56% 증가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따로 닦을 수 있는 항균 지퍼백이나 유아용품을 닦는 데 쓰는 항균 물티슈를 많이 찾으면서 이 제품들이 평소보다 17~23% 가량 많이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확산 중인 독감의 유형이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와 같은 H1N1으로, 2009년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건강식품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홍삼과 인삼가공식품 판매량은 102%,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C 제품은 58% 신장했다. 옥션은 이같은 수요에 발맞춰 물티슈 상품을 990원에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 역시 발 빠르게 '비상! 신종인플루엔자' 기획전을 열고, 항균 세정제와 물티슈, 구강청결제, 친환경 세제 상품을 모아 판매하고 있다.

/박재형기자 pjh@metroseoul.co.kr

"부츠가 재밌어요" 16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가 겨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창고대방출전을 연 가운데 모델들이 폴프랭크, 디즈니 푸우 등 미들을 캐릭터 겨울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3900~1만9900원. /연합뉴스

겨울 아직 남았는데 반값다, 신발 할인전

ABC마트·레스모아 등 반값·덤 행사 줄이어

아직 추위와 폭설이 끝나지 않았지만 겨울 신발 재고떨이가 시작됐다. 새해부터 신발업체들의 할인전이 자연하다. 반값은 기본,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얹어주는 '덤 행사'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슈즈 쇼핑센터 ABC마트는 27일까지 패딩 가죽부츠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레스모아는 이달 말까지 방한부츠는 물론 신학기 학생화로 인기 있는 로버스와 옥스퍼드화, 하이힐 슈즈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양털부츠로 유명한 어그의 전 제품은 30% 할인하며, 굴버스 단독 매장에서 어그 구매 시 고급 양털 장갑을 선물한다.

'노 세일' 브랜드 나인웨스트는 전국 43개 매장에서 시즌 오프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워커 스타일 부츠를 비롯해 플랫 슈즈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국내 최초 기능성 컴포트 슈즈숍 릴라릴라는 겨울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더 주는 '1+1 행사'를 실시한다. 바글의 경우 같은 라인의 제품을, 릴라사먼도는 부츠 구매 시 방한화를 추가로 준다.

/박지원기자

제주 새명소 '해온' 힐링 하루·편 하루

롯데호텔제주 야외 스파 & 가든 개장기념 패키지 5만원 할인 손짓

롯데호텔제주가 5개월간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제주 최대 프리미엄 야외 스파 & 가든 '해온(海溫)'을 개장한다.

힐링(Healing)과 펀(Fun)을 주제로 한 해온은 휴식, 재충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치유 공간이다.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와 뮤직 테라피, 고품격 마사지 등으로 오감을 만족시킨다.

해온은 사계절 내내 자정까지 수영과 온수 스파를 즐길 수 있으며 쿨비 카바나, 건식 사우나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 해온 오픈 기념 패키지

롯데호텔제주는 해온의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 한라룸 1박, 2인 조식, 올레 드리밍 풀바 칵테일 및 글램처우더 스프로 구성한 '하이!해온' 패키지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박 이상 시 유기농 화장품 프리미라 힐링 키트를 증정한다. 요금은 27만원부터.

여성을 위한 한정 패키지 '하이!해온 스파'는 'SK-II 카비나 테라피'를 메인으로 디럭스 오션룸 1박과 조식, 풀바 칵테일 및 글램처우니 스프를 포함하며, 2박 이상 시 화산분수쇼 뷔페(2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요금은 33만원부터(모든 패키지 1박 기준, 세금 및 봉사료 별도).

22일까지 예약하면 1박당 5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문의 1577-0360

/박지원기자

기차역 편의점서 느낀 감동사연 공모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전국 역사 내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한 고객 감동 스토리텔링 사연 공모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역사 내 스토리웨이 매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친절 사례와 매장 직원의 감동 사연 등을 500자 내외로 작성해 e-메일(krpr@korailret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2월 4일 오후 3시까지이며 당선자은 2월 8일 오후 4시 코레일유통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에서 발표한다.

1등(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고, 2등(2명) 50만원, 3등(3명) 30만원, 4등(5명) 20만원, 5등(5명) 10만원, 6등(1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070)7092-7169

이랜드 SNS소통 시작 블로그·페북 동시 오픈

이랜드그룹이 소비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식 블로그(blog.eland.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elandgroup)을 16일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선출한 동국을 시작으로 실로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스마트폰영화제 심사위원

봉준호 감독이 제3회 올레국제스마트폰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16일 영화제 측이 발표한 심사위원 명단에는 봉 감독을 비롯해 윤종석·이무영·임필성 감독 등이 포함됐다. 봉 감독은 "예전 단편영화를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심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해 할리우드 데뷔작 '설국열차'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스토커' 다음달 28일 상영

박찬욱 감독의 신작 '스토커'가 다음달 28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된다.

스콧 형제가 제작을 맡고 웬트워스 밀러가 각본을 쓴 '스토커'는 18세 생일에 아버지를 잃은 소녀 앞에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니콜 키드먼·미아 바시코브스키 등이 주연 배우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다.

'아이 갓 …' 유튜브 3000만건

소녀시대의 정규 4집 타이틀 곡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가 16일 유튜브 조회 수 3천만 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개 15일 만에 3천만 뷰를 달성한 것은 한국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기록"이라고 전했다. 이 곡은 1일 공개와 동시에 대만·싱가포르 음악 차트와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랩퍼 컴백 … '소풍' 음원 공개

배우 소지섭이 랩퍼로 돌아왔다.

그는 두번째 미니앨범 '6시 … 운전 중'의 수록곡 '소풍'을 16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별하는 남녀의 사연을 담은 이 곡에서 속삭이듯 읊조리는 랩을 선보이며 중저음 목소리의 매력을 십분 발산했다. 피처링은 윤하가 맡았다. 소지섭은 이번 앨범에서 '소풍'을 비롯해 수록곡 4곡 중 3곡의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직도 연기는 허점투성이

데뷔 20년 … '박수건달'로 스크린 신고 정혜영

정혜영(40)이 데뷔 20년 만에 처음 출연한 영화로 대박을 터뜨렸다. 9일 개봉한 '박수건달'은 한 주 만에 1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다. 남자 주인공 박신양의 코믹 변신은 마케팅에 일조했다면, 극장을 나서는 많은 관객들 정혜영이 선사하는 감동 코드에 눈물을 훔쳤다. 흥행의 좋은 추억이기만 그는 "예전의 가족 후 나중 보는 건 부끄럽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밝고 감동 녹은 스토리에 출연
마지막 병원신 5일 내내 울어
개봉 첫주 100만 … 정말 좋아

–첫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둬 기분이 남다르겠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시사회에서 나오는 반응이 좋았지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 개봉할 때까지 두려움이 컸다. 개봉 첫날 그런 걱정이 조금 사라졌다.

–20년 만의 영화로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지금까지 받았던 시나리오 중 가장 즐겁고 밝았다. 단순히 웃기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감동도 있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한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몇 날 며칠이 가도 가슴에 남아있는 느낌을 나도 한번 주고 싶었다.

–딸과 나누는 슬픈 감정신이 흥행에 한몫한 것 같다.

수도 없이 시나리오를 읽고 반복해서 촬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감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숙제였다. 시사회 때도 내가 나오는 부분만 주관적으로 보게 돼 영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이번 영화도 그렇고 어떤 작품에서건 내가 나오는 부분은 너무 부끄럽고 허점이 많아 보인다. 지금도 연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항상 완벽한 배우를 갈망하고 있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

영화에서 부르는 이문세의 '소녀'를 전화기에 다운받아 놓고 시나리오를 볼 때마다 들었다.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마지막 장면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5일 내내 울었다.

–영화를 본 남편(션)의 반응은 어떤가.

시나리오를 받을 때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남편과 상의하고 줄곧 많은 얘기를 나눴다. 제작진만큼이나 영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혼자 개봉 첫날 조조 상영을 보고 와서는 온갖 희망의 꿈을 불어넣어 주는 말을 하더라. 평소에도 늘 긍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남편의 반응을 믿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

–남편이 300만 관객 돌파 시 명동과 부산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던데.

나보다 더 기뻐하고 있다. 더 흥행하면 투자사와 상의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하더라. 이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신중히 생각하자고 했다. 호호.

–기부와 선행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있나.

행복하니까 한다. 물론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일부를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좋은 일에 쓸까를 늘 고민한다. 나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고,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남과 함께 나누는 것뿐이다.

–촬영하는 동안 네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이 특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다. 둘이 같이 집에 있어도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도 남의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서다.

–올해 시작이 좋은데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떤 작품을 만나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이렇게 일하는 것에 늘 감사한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선경

최다수상·3관왕… '슈주의 날'

골든디스크 시상식 | 비스트·카라·씨엔블루 등 2관왕

슈퍼주니어가 K-팝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이들은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팡 서킷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제27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인 쿠알라룸푸르 음반 부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가온차트 음반 판매량 집계를 기준으로 시상했으며 슈퍼주니어는 정규 6집 '섹시, 프리 & 싱글'로 45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슈퍼주니어는 2009년 3집 '쏘리 쏘리'와 2011년 5집 '미스터 심플'에 이어 세 차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김건모·조성모·소녀시대에 이어 최다 수상 기록이다. 슈퍼주니어는 이날 대상과 함께 본상·MSN 사우스이스트아시아상도 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

슈퍼주니어는 '군 입대는 연예 활동 중단'이라는 관례를 깨고 입대와 제대 등 멤버들의 신변 변화에 상관없이 정상의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대상 수상 후 "군 복무 중이라 함께하지 못한 이특 형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비스트는 본상과 비스트 아티스트상 등 2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멤버인 장현승은 포미닛의 현아와 함께 발표한 '트러블 메이커'로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현아가 소속된 포미닛도 본상을 수상했다.

슈퍼주니어

이외에 본상 수상자로는 인피니트·FT아일랜드·씨엔블루·카라·샤이니·B1A4 등 총 9개 팀이 선정됐다. 신인상은 엑소케이와 주니엘에게 각각 돌아갔다. 인피니트는 베스트 그룹 퍼포먼스상, 카라와 씨엔블루는 말레이시아 최고 인기상도 받으며 2관왕이 됐다. FT아일랜드·씨엔블루·주니엘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는 제작자상을 수상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조용필·라이머·김도훈(왼쪽부터)

조용필 이름 사용 팬텀에 허하노라

'가왕' 조용필이 최초로 후배 가수의 신곡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남성 3인조 그룹 팬텀이 17일 발표하는 두 번째 미니앨범 '팬텀 시오리'의 타이틀곡 '조용필처럼'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팬텀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도훈과 라이머는 조용필을 직접 찾아 노래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조용필은 이를 승낙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라이머는 트위터에 "'조용필처럼'이라는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자 도훈 형과 조용필 선배님을 찾아뵀었을 때"라고 적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휴식기를 보낸 조용필은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아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 상반기 컴백을 목표로 현재 10년 만의 새 앨범인 정규 19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

레이디가가 스타일리스트에 빅뱅 지드래곤 신곡선물 눈길

빅뱅의 지드래곤이 레이디 가가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니콜라 포미체티에게 신곡을 선물했다.

포미체티는 16일 열린 프랑스 패션 브랜드 뮈글러의 남성복 패션쇼에 지드래곤의 음악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드래곤이 내 쇼를 위해 직접 음악을 만들었다"고 적으며 친분을 드러냈다.

포미체티는 뮈글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그 옴므 재팬의 패션 디렉터, 유니클로의 이프 디렉터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파격적인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디 가가의 스타일리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평소 지드래곤·빅뱅·2NE1의 팬임을 밝혀왔다.

지드래곤은 현재 월드투어 마무리와 국내외 활동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음악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다.

/유순호기자

강호동이 16일 KBS2 '달빛 프린스' 기자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재석과 라이벌로 평가 강호동 "최고의 격찬이죠"

방송인 강호동이 유재석의 라이벌이라는 말에 "최고의 격찬"이라며 겸손해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달빛 프린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유재석씨는 어릴 때부터 코미디·예능이 몸에 배어 있어 부럽다"면서 "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은 매주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북 토크 형식의 이 프로그램에서 동방신기 최강창민·용감한 형제·정재형·탁재훈 등과 MC를 맡았다.

지난 12일 첫 녹화를 마친 그는 "책 소재의 예능이라 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재미는 모이기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탁재훈은 "난 강호동 라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펼치는 특수요원이다. 강호동이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강창민은 "데뷔 10년차지만 예능은 초짜라 부담된다. 믿음직한 형님들을 믿고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오감 깨우는 '모래야 놀자' 인기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체험전 '모래야 놀자'가 인기 무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용인 아르피아 특별전시장과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갤러리B에서 오픈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무대는 추운 날씨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들에게 활동성을 제공하면서 숨어있는 감각도 깨워준다.

모래 이야기, 화석 만들기, 색모래 그림 그리기, 개미굴 탐험, 모래 속 화석 찾기, 샌드 스크린 등 총 6가지 테마로 나눠 담당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도한다. 모래 속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뛰어 놀기 때문에 여벌 옷과 수건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 1666-2557 /김현준기자

스타는 없지만 울림은 그대로

윤영석·양준모 '지킬' 세대교체…롱런 가능성 열려

musical review

■ 지킬 앤 하이드

8일 예술의전당에서 막이 오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국내 초연 10년째를 맞은 올해 지킬의 세대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조승우·류정한·홍광호 등 역대 지킬이 나서 매진 사례를 이뤘던 2010년 공연 이후 2년 만에 선보인 이번 공연엔 당시와 같은 걸출한 스타는 없다. 대신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 역을 맡았던 윤영석·양준모가 포진해있다.

역시나 이번 공연은 티켓파워에서 예전보다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작품 자체가 지닌 뛰어난 작품성에 10년째에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주고, 두 배우의 열정과 실력은 새로운 지킬의 탄생을 알린다.

줄거리는 익히 알려졌듯 선한 심성의 의사 지킬이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신약을 자신에게 직접 실험한 후 악마 같은 하이드로 변하여 벌어지는 일들과 지킬의 사랑, 고뇌가 주 내용이다.

같지만 다른 두 인물을 통해 보여지는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은 인간의 내면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듯하지만, 반어적으로 선과 악은 공존한다는 인간 본연의 이중성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지킬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 그를 사랑하는 엠마가 노래하는 '원스 어폰 어 드림' 등 프랭크 와일드혼이 빚어낸 명곡들은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귀에 감미롭게 착 감긴다.

백미는 지킬이 신약을 처음 실험하며 하이드로 변신하는 장면이다. 부드러운 지킬 연기가 밋밋하게 느껴질 때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일순간에 풀어헤치고 괴성을 지르는 배우의 변신은 온몸에 전율이 일게 한다. 선과 악 사이에서 고뇌하는 지킬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반반씩 지킬과 하이드 분장을 하고 순식간에 변하는 목소리와 강렬한 몸짓으로 두 인물을 번갈아 표현하는 장면도 압권이다.

세대 교체를 시도한 이번 공연은 티켓파워가 신통치 않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만을 거뒀다고 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캐스팅과 상관없이 모자람 없는 감동으로 더 롱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공연은 다음달 9일까지. 문의 1588-5212

또디 by 정연식 <575>왜 하필

wind8686@naver.com

태권도 넌버벌 '탈' 서울 상륙

타악·비보잉 담아 스펙터클한 무대 꾸며

태권도와 아리랑이 조화를 이룬 넌버벌 퍼포먼스 '탈'(21일~3월 24일 K-아트홀)이 서울 장기공연에 돌입한다.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 유치와 명품화·세계화·예술화를 목적으로 2010년 제작된 '탈'은 미국투어를 시작으로 그동안 해외 18개국을 돌며 75만 관객에게 감동을 줬다.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공연, 2012년 4월 유네스코(UNESCO) 초청공연, 12월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식 무대 등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권선징악'이다. 욕심 많은 인간이 평화로운 에덴동산에서 신의 힘을 지닌 탈을 탈취하면서 인간 세상은 어지러워진다. 신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하늘의 무도 태권도를 내려 탈을 되찾고 인간은 평화를 되찾는다.

최소리 총감독은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 무예이고, 아리랑은 우리의 뿌리를 대변하는 소리다. 전국 각지의 잊혀진 전설과 신화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로 꾸몄다"며 "하늘의 소리를 타악에, 인간의 욕망을 비보잉에 담아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공연을 스펙터클하게 탈바꿈시켰다"고 밝혔다. 문의 02)2215-3535

What's Hot

WA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삼성화재 홈페이지(samsungfire.com)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년 4개월까지 진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사에서 웹접근성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장애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해당 홈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LIG손해보험은 14~16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어린이 50명을 초청해 무료 방학캠프 프로그램인 'LIG희망 드림캠프'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LIG희망드림캠프는 지난해 9월 LIG손해보험이 개최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인 '2012 LIG손해보험 클래식' 대회에서 마련된 자선기금 3000만원으로 개최돼 그 특별함을 더했다.

유럽 최고의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는 15일 홈플러스 충대문점에서 가정용 제품 출시 기념 행사를 하고 서울·경기 부산 홈플러스 밖 부 매장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동안 스텔라 아르투아는 주요 수입 맥주 전문점 및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해왔으나 이번 대형마트 입점을 계기로 가정용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16일 LG전자 공식 유튜브 계정(youtu.be/NbFmQno7IJs)을 통해 연재의 스무살 생활 에티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영상은 올해 20세가 된 손연재 선수가 친구들과 셀일 파티를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2013년 새롭게 출시된 휘센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다 친근하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취약계층 어린이 자아존중감 '쑥쑥'

SK의 '서울행복한학교' 무료 정서교육 스타트

SK그룹이 설립한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사회적기업인 서울행복한학교가 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 심리적 안정을 목표로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1월부터 시작된 정서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활동과 문학 체험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목표 설정을 지원해 긍정심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숲 속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해 생태 존중의 의미를 깨닫고 인성 배움과 트래킹을 통한 성취 배움 프로그램인 산림 치유 활동 ▲목공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공 체험 이외에도 '치즈마을 탐방' 어린 세계도자박물관 견학 체험 케밥바이크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평소 경험하기 힘든 이색적인 활동을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즐기며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번 정서 교육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오는 9월까지 4개 학교 1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 명절위한 '한우 요리교실'

25일 백설요리원서 무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CJ제일제당과 함께 설 때 손님 초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한우 쿠킹클래스'를 서울 중구 백설요리원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한우 쿠킹클래스에서는 한우 떡갈비 스테이크와 한우 울실 루꼴라 샐러드 요리법을 스타 요리 강사인 요리연구가 정미경씨에게 직접 배울 수 있어 설 명절 빠듯한 시댁이다 친정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요리 솜씨를 자랑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우114(hanwoo114.co.kr) 백설(beksul.net) CJ 더 키친(cjthekitchen.co.kr) 등 홈페이지 3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17일까지다. 주제상 새내기 주부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새 MLV '코란도 투리스모'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프리미엄 MLV 모델의 브랜드명을 '코란도 투리스모'로 확정하고 렌더링 이미지를 16일 공개했다.

쌍용차가 2년여의 개발 기간 끝에 다음달 선보일 코란도 투리스모는 SUV의 스타일링과 성능, 승용차의 안락함, 탁월한 활용성을 통합한 MLV(Multi Leisure Vehicle, 다인승·다목적 레저 차량) 콘셉트를 바탕으로 '레크리에이션 에이스캠프'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을 혁신하고 광범위한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행과 레저, 비즈니스 등 다양한 활용 측면에 걸맞은 편의성과 상품성을 강화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다음달 중 개최되는 보도발표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교연계 인성교육 콘퍼런스

17일 서울여대 바롬관

서울여자대학교는 17일 교내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학부모 입학사정관들을 초대해 '고교·대학 연계 인성 교육과 인성 평가의 방향성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는 흥순혜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원장, 고명희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해 오해섭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치과장, 송선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장 등 관련 기관 인사들도 초청해 진행될 예정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200여 명의 고교 교사 및 학부모, 입학사정관들에게 본교 입학사정관제 선도 모델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인성 평가 지표를 설명해 실제 대학 평가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먹는 '스킨5 수퍼워터'

롯데헬스원(www.lottehealth1.com)은 피부 속부터 채워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너뷰티 브랜드 스킨5를 업그레이드한 '스킨5 수퍼워터'를 출시했다.

스킨5 수퍼워터는 피부 보습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비롯해 비타민 C, 콜라겐, 식물성 오메가3, 레티반 등 피부에 좋은 5가지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수분 공급은 물론 톤의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올인원 이너뷰티 제품이다.

정제 타입으로 만들어 휴대와 복용이 간편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피부의 혈색을 환하게 변화시켜주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식물성캡슐과 천연색소를 사용해 효능은 물론 안전성까지 충족시켰다.

강서구 '어린이집 확보' 팔걷었다

구로구 실버악단 창단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어린이집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먼저 공항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고 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이 상실된 쓰레기 처리 시설인 공공 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항동 지역은 일소 대기자가 680명이 넘고 있어 올해 신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보육 수요 충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립 실버악단을 발단한다. 다음달 창단 예정인 실버악단은 단장, 지휘자를 비롯해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기타, 드럼 등의 악기 연주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24일까지 구청 노인청소년과(860-2818)로 신청하면 된다.

용산구는 15일 주택과 정평규 주무관이 동네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등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소 봉사활동과 에쾌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도 기부하고 있는 정평규씨는 지난달 31일 용산구 동우식에서 제2회 청렴 공무원상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What's New

블랙야크의 '윈터 니트트 베이스레이어'는 신체를 분석해 부위별로 다른 소재를 적용한 스마트한 제품이다. 체온이 쉽게 떨어져 보온이 더욱 필요한 부위에는 체온을 반사해 보온성을 높여주는 은색원 소재 글니트트 리플렉티브를 사용하고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등에는 흡수와 건조, 배출 기능이 뛰어난 윈나위크를 사용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NS홈쇼핑은 다음달 8일까지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개최한다. 브랜딩 홍보, SNS 마케팅, 광고, 상품 프로모션 디자인 등 마케팅 관련 모든 분야에서 NS홈쇼핑과 NS몰의 인지도 증대를 위해 고객과의 호흡 적인 소통 활동을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제안하면 된다. 대상 1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상패 및 상장과 NS홈쇼핑 인턴십 채용 기회와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스냅북(instaabook.com)은 총 5종 15가지의 솔업북류 테이크아웃)를 선보이고 다양 부수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해 권당 2만원대 솔업북을 1만원대로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30분 안에 제작 가능한 손쉬운 제작 툴로 누구나 솔업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교육의 초등 대상 논술 잡지인 '우등생논술'에서 6기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우등생논술 명예기자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하며 상상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거나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본인 사진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빕스가 28일 와인 초보자를 위한 '빕스 와인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20일까지 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2회 강좌의 수강료는 식사비 포함 5만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빕스 와인 쿠폰과 추첨을 통해 샐러드 바 식사권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소비 정보 전문 방송사 '소비자TV'가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 개국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3년 새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방송 운영에 반영해 새로운 의지를 다질 전망이다. 소비자TV는 이번 제2 개국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TV는 신예 대표이사 취임을 비롯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물론 기존 방송 도한 새롭게 개편해 'CTV 소비자매거진 W' '말뚱살롱 소비학서' '착한기업 H_5ive'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0 What's the date today? 날짜와 장소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1987년 11월 1일에 태어났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저는 뉴욕의 한 작은 타운에서 태어났어요.
당신은 어디서 자랐어요?
전 매디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was born on November 1st, 1987.
Today is my birthday.
I was born in a little town in New York.
Where did you grow up?
I went to Madison high school.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Today is your birthday, isn't it?
B: Yes. 오늘 is my birthday. How did you know?

정답: toda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 He was born on April 29th, 1988 / July 2nd, 1968.
2. I was born in a little town in New York / a small city in California.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handle	동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handle customer complaints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하다
introduce	동 소개하다, (신상품을) 출시하다 introduction 명 소개	introduce a new line of products 신제품군을 소개하다
obstruct	동 (시야 등을) 막다, 방해하다 obstruction 명 방해, 장애물	obstruct my view 내 시야를 막다
raise	동 (자금을) 조성하다, 올리다 명 급여 인상	raise funds 자금을 조성하다
renew	동 갱신하다 renewal 명 갱신	renew a subscription 구독을 갱신하다
work	동 일하다, 효과가 있다 명 일, 작업	work on a new assignment 새로운 과제에 대해 작업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6 Express an opinion

연결 문장과 주된 이유 말하기

I have several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연결 문장을 말하면서 뒤이어 의견을 뒷받침할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해야 한다. 준비시간이 다른 파트들에 비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좀더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세련된 답변을 말할 수 있다.

Most of all, it is exciting and fun. 무엇보다도 그것은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연결 문장까지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의견의 이유를 말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선호하는 이유는 한 문장으로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첫 문장을 길게 말하는 것은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데 방해 요인이 된다.

좋은 예: Most of all, it is exciting and fun. 무엇보다도,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나쁜 예: Most of all, I like to have a good time while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or other people that I know. 무엇보다도, 저는 친구들 혹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즈-매킬로이 새해 첫 맞대결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 오늘 개막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세계랭킹 2위)와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중동에서 2013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두 선수의 대결장은 17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투어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흥행을 위해 1·2라운드에 우즈와 매킬로이, 마르틴 카이머(독일)를 같은 조에 편성했다.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 기록에 도전하는 우즈는 2008년 US오픈 우승까지 14승에 머물렀고 2009년 이후 2년 넘게 일반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누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매킬로이는 이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공동 11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2009년부터 톱5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한편 이들은 이번 대회 초청료로 우즈가 250만 달러(약 26억원), 매킬로이가 100만~150만 달러를 받아 대회 시작 전부터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게이트채널 J골프가 생중계한다.

/김민준기자

사이클 올림픽서 퇴출되나?

암스트롱 약물 복용 파문 확산 · 국제사이클연맹 전방위 감사

몰락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42)이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이클을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딕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암스트롱의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해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다면 사이클을 올림픽 종목에서 8년간 제외시킬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IOC 위원이자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사무총장을 맡았던 파운드 위원은 "암스트롱 자신이 약물복용과 관련해 UCI가 부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증명한다면 IOC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암스트롱은 UCI 간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한 사이클계 최고의 선수였다. 특히 1996년 고환암을 선고받은 뒤 수술과 화학요법을 통해 주준히 대회 정상에 오르며 '인간 승리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도핑 의혹을 받기 시작한 뒤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USADA는 지난해 8월 암스트롱이 갖고 있던 모든 수상 기록을 박탈해 그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트래비스 타가트 USADA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스포츠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UCI가 암스트롱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지성 3경기 연속 풀타임

QPR 컵대회 32강행… 이청용도 팀 승리 견인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사진)이 3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소속팀을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2강으로 이끌었다.

박지성은 16일 열린 FA컵 64강전 재경기에서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을 1-0으로 제압했다. 6일 홈에서 치른 64강전에서 웨스트브로미치와 1-1로 비겨 재경기를 한 QPR은 이날 후반 30분 공격수 제이 보스로이드의 선제 결승골을 잘 지켜 32강행 티켓을 잡았다.

중앙 미드필드를 맡은 박지성은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웨스트브로미치의 날카로운 공세를 막아냈다. QPR은 후반 들어 조금씩 슈팅 기회를 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

렸고, 후반 30분 보스로이드가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았다.

이청용(볼턴)은 선덜랜드와 원정으로 치른 64강전 재경기에서 후반 25분 베니크 아포베의 부상으로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20여 분을 뛰며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민준기자

새해 정조준!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 태릉선수촌이 16일 개시식을 열고 새해 공식 훈련에 들어갔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시위를 조준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도 이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김두현 수원 삼성 주장

'테크니션' 김두현(31·사진)이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의 주장을 맡는다.

이번 시즌 서정원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수원은 16일 괌 전지훈련 기간에 선수단 미팅을 통해 김두현을 주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1년 수원에 입단해 K리그 통산 221경기(33골 24도움)에 출전한 김두현은 수원에서 정규리그 우승 1회(2004년), FA컵 우승 2회(2002·200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2001·2002년) 등 총 11개 대회의 우승을 맛본 베테랑 미드필더다.

/김민준기자